



# 언론조정·중재제도 도입,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중국의 학자들



중국 국가신문출판관전총국 관계자 면담

중국학자와 기자들의 관심은 기대 이상이었다. 지난 5월 24일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이 중국 언론계 시찰(관련 기사는 『**4월호** **사람**』 2016년 6월호 14쪽 참조) 중 베이징대학 신문방송학원의 초청으로 진행된 특강에 베이징대를 비롯하여 중국 전매대학, 베이징 사범대학 등에서 온 교수, 기자, 학생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어진 질문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와 절차 등에 관한 질문으로, 조정대상 범주에 블로그도 포함되는지, 조정중재를 거쳐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같은 사안에 대한 여러 중재부의 조정 결과가 상이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있는지, 신청할 때 비용이 드는지, 35년 동안 한국이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용해 올 수 있었던 근거로서의 공정성 및 실효성의 장치는 무엇인지 등등 제도 운용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나머지 질문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특징을 고려한 새로운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것으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잊힐 권리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위법한 보도에 달린 악성 댓글의 책임 주체는 댓글 작성자인지 인터넷 언론사인지, 잘못된 복제 기사 등으로 인한 책임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지, 복제 기사나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기술적인 방안들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이었는데, 이러한 질문들은 새로운 피해구제를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하며 위원회가 고민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3년 전, 한국언론학회가 베이징대 신문방송연구회 회원 50여 명을 초청하여 학술행사를 개최하였을 때, 위원회도 참석하여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당시 베이징대 첸카이허(陳開和) 신문방송학원 교수는 중국에서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매우 많은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손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겠다며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다음 해인 2014년 위원회가 유럽과 아시아 등 15개국의 언론인과 학계 및 법조계 관계자 300여 명을 초청해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을 때, 중국 베이징대에서 참석한 쉬징(許靜) 교수는 박용상 위원장을 별도로 인터뷰하여 '상하이 저널리즘 리뷰' 2015년 제2호에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자세히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당시 영국의 언론 자율규제기구인 PCC가 이빨 빠진 호랑이로 비유되고 있던 것에 비해 이웃 국가 한국에서는 매우 독특한 언론분쟁해결기구인 이 제도를 30년이 넘게 잘 운용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쉬징 교수와 첸카이허 교수는 이러한 우리 제도와의 인연으로 이번 박용상 위원장의 베이징대 특강을 함께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중국 학계와 행정기관의 입장 차가 현재로서

는 매우 크다는 점도 느꼈다. 언론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관전총국의 우상즈(吳尚之) 부국장은 중국에서의 언론분쟁은 법원 소송, 기자회견과 같은 기관의 업계 윤리, 그리고 각급 행정부가 언론보도 침해 사례를 접수하여 영업금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3가지 방안으로 잘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번 위원회의 방문으로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자세히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매년 중국 기자단이 한국을 방문할 때면 위원회를 찾아 우리 제도에 많은 질문과 관심을 표명하곤 한다. 3~4년 전만 해도 중국의 포털사이트에 한국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기사가 전무하던 것에 비해, 이제는 그동안 위원회를 다녀간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와 이번 위원장의 특강으로 말미암아 위원회를 검색하면 등장하는 기사 리스트가 5~6페이지를 훌쩍 넘어가게 되었다.

1981년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민주화와 함께 이 제도가 더 발전한 한국을 바라보며, 체제가 다른 중국에서도 그 가능성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진지하게 개진한 한 중국 법학자를 마주하니, 우리 제도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관심은 단지 학문적인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 초청 특강